●긔 서

●ᄌᆞ유된 대한미일신보를 축하ᄒᆞ노라

동리군 리윤지

ᄌᆞ유ᄂᆞᆫ 나의싱명ᄀᆞᆺ치 ᄉᆞ랑ᄒᆞ고 보패ᄀᆞᆺ치 귀히너임은 텬하에 공변된리치오 인싱의 ᄀᆞᆺ뜻ᄒᆞᆫ일이라 만일 사ᄅᆞᆷ이 완젼ᄒᆞᆫ ᄌᆞ유ᄒᆞᄂᆞᆫ졍신이 업스면 비록 살엇셔도 죽은이시오 비록 강ᄒᆞ여도 약ᄒᆞᆫ거시오 비록 귀ᄒᆞ여도 쳔ᄒᆞᆫ 시오 비록 흥ᄒᆞ여도 망ᄒᆞᆫ거시니 엇지 싱각지아니ᄒᆞ오

나ᄂᆞᆫ 귀보를 익독ᄒᆞᆫ지 ᄉᆞ오년이라 그붓ᄃᆡ의 강직ᄒᆞᆷ과 긔ᄉᆞ에 명확ᄒᆞᆷ은 사ᄅᆞᆷ으로ᄒᆞ여곰 감복케ᄒᆞ여 사ᄅᆞᆷ마다 환영ᄒᆞ고 곳곳이 칭송ᄒᆞᆷ은 다시 말ᄒᆞᆯ것도 업거니와 다만 ᄒᆞᆫ가지 미흡ᄒᆞᆫ거시 잇스니 신보의 첫머리에 대ᄒᆞᆫ 이ᄌᆞ가 잇슨즉 이거시 당녕 대한의 신보ㅣ오 신보사도 대한에잇고 긔ᄉᆞ도 대한의 일이오 글도 대한의 글이오 말도 대한의말이 분명ᄒᆞ나 편즙겸발힝인이라ᄒᆞᆫ 밋헤 영국인 셕ᄌᆞ가 잇스니 슌젼ᄒᆞᆫ 대한의 권보로써 외국인의 일홈을 닙어셔ᄒᆞ엿슨즉 이ᄂᆞᆫ 형식으로만 대한의신보ㅣ오 실신으로ᄂᆞᆫ 대한의 신보가 아닌줄노 싱각ᄒᆞ고보니 개연ᄒᆞᆫ 단식ᄒᆞᆷ을 금치못ᄒᆞ더니 륭희ᄉᆞ년륙월십팔일 아춤에 귀보를본즉 홀연 편즙겸 발힝인의 셩명이 영국인 만납은 어ᄃᆡ로가고 리쟝훈 삼ᄌᆞ가 된지라 처음에ᄂᆞᆫ 이거시 무ᄉᆞᆷ 곡졀인가 필연 활ᄌᆞ의 오식이가ᄒᆞ엿더나 금기 론셜을복쥬 영인만함은 거두어가고 우리나라ᄉᆞᄅᆞᆷ이 거관을드려 그신보의 명의와 긔계를사셔 계쇽발힝홈이라 반갑도다 오ᄂᆞᆯ날에야 비로소 진개 졍신으로ᄒᆞᄂᆞᆫ 대한미일신보를 보겟도다 ᄌᆞ유를 ᄉᆞ랑ᄒᆞᄂᆞᆫ쟈가 누가 치하를 아니ᄒᆞ리오 그러ᄒᆞ나 려항간셜을 드른즉 영국인 만납이 그 신보를 일인에게 팔엇슨즉 지금브터ᄂᆞᆫ 그신보ᄂᆞᆫ 일인의 긔관이 되엿다ᄒᆞᄂᆞᆫ쟈도잇고 혹은 날ᄋᆞᄃᆡ 우리나라 사ᄅᆞᆷ이 ᄌᆞ간ᄒᆞ면 불만ᄒᆞᆫ말도 업슬지라ᄒᆞᄂᆞ니 나ᄂᆞᆫ 그 뎍실히 그러ᄒᆞᆫ리치가 잇슴ᄂᆞᆫ지 알지못ᄒᆞ거니와 다만 싱각ᄒᆞ여 볼진ᄃᆡ 당초에 공평졍직ᄒᆞ던 신보가 이러ᄒᆞᆫ 비루용렬ᄒᆞᆫ 힝위를 엇지 춤어ᄒᆞ엿스리오 이ᄂᆞᆫ 외인만 의뢰ᄒᆞ고 ᄌᆞ긔나라를 경멸히 녀이ᄂᆞᆫ자의 말이아니면 귀보를 의위ᄒᆞᄂᆞᆫ 마귀의무리가 젼포ᄒᆞᆫ거시 아닌가 오호ㅣ라 귀보의 륙칠년력ᄉᆞ를 상고ᄒᆞ건ᄃᆡ 영국인 비셜씨가 창셜ᄒᆞᆫ이후로 만함씨가 밧어셔 발힝ᄒᆞ더니 이제 또 리쟝훈씨가 밧어셔 계쇽발힝ᄒᆞ니 리쟝훈씨ᄂᆞᆫ 진졍ᄒᆞᆫ 본국인이라 본국인으로 본국신보를 발힝ᄒᆞᄂᆞᆫ거시 실노 ᄌᆞ유의 신보인줄은 못지아니코도 가히 알바ㅣ라

나ᄂᆞᆫ 졍셩을 다ᄒᆞ여 이에 축원ᄒᆞ노니 원컨ᄃᆡ 붓을잡은 제공은 당당ᄒᆞᆫ 독립의 붓으로 ᄌᆞ유의 대한미일신보 수천만ᄃᆡ를 발간ᄒᆞ여 수쳔만인민의 졍신을 흥긔케ᄒᆞ되 오랠수록 변치말고 독립대한미일신보의 인흠을 영세에 보젼ᄒᆞᆯ지어다

●잡 보

●명셔쇼쟝의 납량회

명셔쇼쟝은 본월이일에 ᄌᆞ긔관뎌에셔 납량회를 셜ᄒᆞ고 ᄂᆡ부대신 박뎨슌씨와 농샹공부대신 됴즁응씨와 즁츄원 의쟝 김윤식씨와 리지용씨와 리하영씨와 됴민희씨를 쳥ᄒᆞ여 ᄃᆡ졉ᄒᆞ고 ᄉᆞ일에ᄂᆞᆫ 궁ᄂᆡ부대신 민병셕씨와 탁지대신 고영희씨와 학부대신 리용직씨와 기타 됴희연 쟝셕쥬 유길쥰 윤덕영 세씨를 쳥ᄒᆞ여 ᄃᆡ졉ᄒᆞ엿ᄂᆞᆫᄃᆡ 근일에 또 뎨삼회 납량회를ᄒᆞᆫ다더라

●쳐리공포

경찰셔를 셜치ᄒᆞ지아니ᄒᆞᆫ 디방에 경찰ᄉᆞ무ᄂᆞᆫ 헌병분ᄃᆡ든지 헌병분견소에셔 쳐리ᄒᆞᆯ뜻을 통감부령 뎨 ᄉᆞ십일호로 거월삼십일에 ᄉᆞᄂᆡ통감이 공포ᄒᆞ엿다더라

●회계ᄉᆞ무연습

강원도 각군쥬ᄉᆞ들은 거월브터 ᄉᆞ무협회를ᄒᆞ고 회계ᄉᆞ무를 연습ᄒᆞᆫ다더라

●량씨교문피임

젼학부대신 리지관씨와 젼탁지대신 임션쥰씨ᄂᆞᆫ 즁츄원고문을 피임ᄒᆞ여 쉬히 힝공ᄒᆞᆫ다더라

●관샤필역예뎡

셕조 건축ᄒᆞᄂᆞᆫ ᄂᆡ부관샤ᄂᆞᆫ 본월말일쯤 필역이 될터이오 ᄅᆡ월즁슌브터ᄂᆞᆫ 그리로 이ᄉᆞᄒᆞ고 시무ᄒᆞᆯ 계획이라더라

●영동출발

복간도에 쥬지ᄒᆞᆫ 일본총령ᄉᆞ 영동은 일젼에 입셩ᄒᆞ엿ᄂᆞᆫᄃᆡ 본일오젼팔시삼십분에 남대문에셔 떠나ᄂᆞᆫ 긔챠로 인쳔항에 ᄂᆞ려가 부산ᄭᆞ지 갓다가 다시 샹경ᄒᆞᆯ터이라더라

●발힝뎡지수효

작일에 발힝ᄒᆞᆫ 죠션일일신문은 치안에 방해로 인뎡ᄒᆞ야 발힝뎡지를 명ᄒᆞ엿다ᄂᆞᆫᄃᆡ 신통감 부임ᄒᆞᆫ지ᄉᆞ 이십일이 못되여 한국에셔 발힝ᄒᆞᄂᆞᆫ 신문과 잡지에ᄃᆡᄒᆞ여 발힝뎡지를 명ᄒᆞᆫ수효가 신문은 여섯이오 잡지ᄂᆞᆫ ᄒᆞ나이라더라

●학교수효

거월즁에 학부에셔 도사ᄒᆞᆫ바를 거ᄒᆞᆫ즉 젼국ᄂᆡ에 각관공ᄉᆞ립학교 수효가 이쳔이빅삼십칠이라더라

●뎡지ᄒᆞᆫ신문ᄒᆡ명

발힝을 뎡지ᄒᆞ엿던 황셩신문과 죠션신보와 한일뎐보롱신은 작일에 ᄒᆡ명되엿다더라

●쇼방ᄃᆡ련습

경무총감부에셔 본일에 쇼방ᄃᆡ들을불너 림시련습을 거힝ᄒᆞᆫ다더라

●송병쥰의쥬의

젼일브터 환국ᄒᆞᆫ다ᄂᆞᆫ 말을 젼파ᄒᆞ던 송병쥰은 경셩의 풍운만 ᄇᆞ라보고 무ᄉᆞ히 두류ᄒᆞ면셔 ᄉᆞᄂᆡ통감이 귀국ᄒᆞ기젼에ᄂᆞᆫ 결단코 환국지아니ᄒᆞᆫ다ᄂᆞᆫᄃᆡ ᄉᆞᄂᆡ통감이 한국을 오기젼에 송모를 불너셔 그 의견을 무르셔ᄃᆡ으로 송은 통감의 뜻을알고 통감도 송의 뜻을 알엇ᄂᆞᆫ지라 송이 ᄌᆞ긔일신에 ᄃᆡᄒᆞ야ᄂᆞᆫ 시국에 관계되ᄂᆞᆫ 일이업스나 일진회에 ᄃᆡᄒᆞ야 ᄉᆞᄂᆡ통감의 슈단만밋고 망동치말니고 편지를 보낸다더라

●관샤삼문퇴락

이천군관사 삼문이 이번쟝마비에 문허졋ᄂᆞᆫᄃᆡ 엇더케 쳐리ᄒᆞᆯ 방법을 ᄂᆡ부에 픔쳥ᄒᆞ엿다더라

●면보긔쟈유람

동경미일면보긔쟈 뎨긔일묘ᄂᆞᆫ 녀롬휴가를 인ᄒᆞ여 경셩을 유람ᄒᆞᆯ ᄎᆞ로 금명간에 입셩ᄒᆞᆯ터인ᄃᆡ 일쥬일간을 류ᄒᆞᆯ예뎡이라더라

●불원산슈죵물분급

평양 슈도ᄉᆞ무소에셔ᄂᆞᆫ 여러 인민에게 슈통물을 줄터이나 물쟝ᄉᆞ의 삭젼으로 분경이 된다더니 샹당ᄒᆞᆫ 삭젼으로 물쟝ᄉᆞ에게 교셥ᄒᆞ고 불원간에 슈통물을 주게ᄒᆞᆫ다더라

●근위ᄃᆡ영문쳥결

근위보병ᄃᆡ 영문안에셔ᄂᆞᆫ 재작일에 대쳥결을 시힝ᄒᆞ엿다더라

●열심쥬션

길쥬군슈 리민구씨ᄂᆞᆫ 태극교죵지소를 셜시ᄒᆞ기로 열심쥬션ᄒᆞᄂᆞᆫ즁이라더라

●송충이도만타

젼라북도 림피군에ᄂᆞᆫ 금년에 송충이가 대단ᄒᆞ여 솔닙을 모조리 먹엇ᄂᆞᆫᄃᆡ 솔나무ᄂᆞᆫ 모ᄂᆞ 불에든 모양ᄀᆞᆺ다더라

●졍년회강도

본일오후삼시에 죵로 쳥년회관에셔 복음회를 셜힝ᄒᆞ고 미국 하와이에셔 젼도ᄒᆞ던 목ᄉᆞ 리겸직씨를 쳥ᄒᆞ여 강도ᄒᆞᆫ다더라

헛ᄉᆞ흔 슈작

△츙쳥북도 각군에ᄂᆞᆫ 일진회원 몃명이잇ᄂᆞᆫᄃᆡ 그회원들이 발론ᄒᆞ기를 경셩일진회본부에셔도 경비가 곤난ᄒᆞ야 허산될영향이 잇다ᄒᆞ니 우리들은 일진회인지 이진회인지 그 발겨갈회ᄯᆡ문에 망신패가ᄒᆞᆫ쟈가 열에아홉은된즉 우리들이 일시에 송병쥰과 리용구에게 ᄃᆡᄒᆞ야 우리의 허비ᄒᆞᆫ돈을 일일히 도로 찾고 셩언ᄒᆞ엿다지 송병쥰 리용구ᄂᆞᆫ 기간에 부쟈가 되엿지만 그돈을 다 토ᄒᆞ려면 오장이 다 쏘다질걸

△일진회원 류문경은 간몽욱으로 변셩명ᄒᆞ여 달나고 지판소에 ᄀᆡ소ᄒᆞ엿다지 류가가올홀지 김가가올ᄒᆞᆯ지 누가 ᄌᆞ세히 알니오 그외의 피슈 송병쥰이ᄂᆞᆫ 변셩명홀여 노다라고 힘세를ᄒᆞᆫ즉 그회에 드러가면 오장만변ᄒᆞᆯ뿐아니라 셩명ᄭᆞ지 변ᄒᆞᄂᆞᆫ군

△의친왕뎐하ᄭᅴ셔ᄂᆞᆫ 일젼에 영션군 리쥰용씨와 황학뎡에셔 편샤를쏘다가 의친왕뎐하의편에셔 졋ᄂᆞᆫᄃᆡ 그 진거시 분ᄒᆞ다ᄒᆞ야 편샤를 또ᄒᆞᆫ번 쏜다ᄒᆞ니 활쏘ᄂᆞᆫ 경졍험으로 국가ᄉᆞ에도 경졍힘이 조곰 낫스면

△총리ᄂᆞᆫ 병세가 쾌차치못ᄒᆞ여 홍샹 신음신음ᄒᆞᆫ다더니 근일에ᄂᆞᆫ 셔중을인ᄒᆞ여 병세가 더옥 침즁ᄒᆞ다지 허허 디위가 들먹늘먹ᄒᆞ닛가 환열 화열 혀열 셔열이 병발ᄒᆞ여 열ᄉᆞ덩어리가 되엿스니 재물에 이열치열이 되겟군

편편긔담

본사샤원

엇던사ᄅᆞᆷ은 ᄂᆡ외가 다 한벙어리라 셔로 말ᄒᆞᄂᆞᆫ것을 보면 손으로 입을막고 도라서셔 웃지아녀ᄒᆞᄂᆞᆫ쟈ㅣ 업더라 그럼으로 그 ᄂᆡ외가 홍샹 축원ᄒᆞ기를 ᄌᆞ식이나 말을 ᄯᅩᆨᄯᅩᆨᄒᆞ게ᄒᆞᄂᆞᆫ ᄌᆞ식을 낫케ᄒᆞ여 달나ᄒᆞ더니 미구에 ᄯᆞᆯ을 낫ᄂᆞᆫ지라 이것은 말을 ᄯᅩᆨᄯᅩᆨ이ᄒᆞᆯ가ᄒᆞ엿더니 쟝셩ᄒᆞᆫ후에 보ᄆᆡ ᄯᅩᄒᆞᆫ 반벙어리라 ᄒᆞᆫ탄ᄒᆞ나 엇지ᄒᆞᆯ수업시 사회나 엇으면 말을 ᄯᅩᆨᄯᅩᆨ이ᄒᆞᆯ가ᄒᆞ고 광구ᄒᆞ여 사회를 맛ᄂᆞᆫ날 쟝모가 그 말ᄒᆞᄂᆞᆫ거슬 듯기가 얼마나 급ᄒᆞ든지 ᄯᆞᆯ을 신방으로 인도ᄒᆞ여 드려보낸후 문밧긔셔 밤이 들도록 엿보와도 말ᄒᆞᄂᆞᆫ 소리를 드를수 업ᄂᆞᆫ지라 그 방안에셔ᄂᆞᆫ 신랑이 신부의 말ᄒᆞᄂᆞᆫ것을 보고져ᄒᆞ나 ᄌᆞ긔가 반벙어린고로 몬져 말ᄒᆞ기ᄂᆞᆫ 붓그럽고 ᄒᆞᆫ계교를ᄂᆡ여 주머니에셔 무슴 편지를내여 보ᄂᆞᆫ데ᄒᆞ고 촉불압헤 갓가히 안ᄌᆞ셔 머리를 숙이고 심즛 초립을 불에 닷케ᄒᆞ니 신부가 보다가 초립이 ᄐᆞ게된거시 민망ᄒᆞ여 붓그러옴을 참고 뎌 불보라ᄒᆞᄂᆞᆫ 말이(뎌부바)ᄒᆞᄂᆞᆫ지라 신랑이듯고 그도 반벙텀을알미 어이업셔 뎌말보라ᄒᆞᄂᆞᆫ말이(뎌마바)ᄒᆞ거늘 쟝모가 듯다가 하 긔가막혀 안ᄉᆞ방으로 불이낫케가며 돌다 벙어리라ᄒᆞᄂᆞᆫ말이(두다버이)ᄒᆞ니 그 쟝인은 긔가막혀 ᄒᆞ춤 벙벙히 안졋다가 우리집 운수로고ᄒᆞᄂᆞᆫ말이 (우듸지우두노고)ᄒᆞ더라

ClibPDF - www.fastio.com